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순항... 인재 육성 박차

교육·돌봄·문화 연계 생태계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전라남도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지정 이후 1년간 순천형 창의인재 양성, 정주형 특화교육 등 교육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연계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양성, 정주형 특화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순천형 교육발전특구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298억원이 투입되며 '순천형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특성화고의 대학이음 교육과정에서 수강생이 웹툰 애니메이션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순천시 제공

등 24건의 직접사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 '글로벌대학 30'

등 5건의 연관사업에도 3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직접사업 예산은 65억

원이다.

특히 시는 교육으로 통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인재를 교육발전특구에서 키워 기회발전특구로 머물고, 문화도시특구로 꽃피울 수 있도록 3대 특구 연계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순천시 현안 사업과 연계한 k-디즈니 순천 문화콘텐츠 교육과정이다.

시는 생태와 정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선도 학교 육성, 문화콘텐츠 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역대학과 연계한 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 진로 연

계 교육을 실시해 지역 아이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취업 강점형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고-대학이음 교육과정으로 드론, 웹툰, 간호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우수한 생태 자원과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기회를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이 키운 인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순천이 인재가 모이는 도시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내수면 생태계 보전” 수산종자 20만 마리 방류

순천시는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총 10여 품종, 약 20만 마리의 건강한 어린 물고기를 섬진강과 동천 일대에 단계적으로 방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첫 방류 품종인 동남참게 1만 7000마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섬진강 및 동천 일원 등에 미꾸라지, 동자개, 붕어, 메기, 동남참게, 쏘가리, 자라 등을 방류한다.

방류 이후에도 품종별로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필요한 수산자원 보호 조치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자체적으로도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한 하천과 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어린 물고기 10여 품종, 29만3000마리를 방류하고 친환경 수산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를 안정화하고,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3일 순천시 내수면 어촌계에서 황전면 비촌리 수역 일원에 어린 쏘가리를 방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예총 ‘2025 정원예술제’ 준비 본격 시동

내달 1일부터 오천그린광장서

순천예총은 최근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2025 정원예술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2025 정원예술제는 '정원으로 나온 예술품(문화예술+애니·웹툰) in 순천'을 주제로 오는 8월1일부터 2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펼쳐진다. 25개 지역예술단체, 300여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며 정원문화에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원예술제는 정원에서 소풍을 즐기듯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애니메이션 요소를 가미한 문화콘텐츠를 다양한 장르의 복합형 예술 작품으로 지역예술인이 제작해 공연하고, 웹툰, 포토아트, 아트페어, 글리프, 프리마켓, 아티스트스퀘어,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전시 및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소년 캐릭터 엽서 공모전과 전남 학생무용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8월2일 본무대에서 진행한다. 이에 앞선 8월1일 개막식에는 시민과 함께 즐기는 개막 퍼포먼스를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 정원예술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예술인에게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역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순천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속사업으로 정착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10일까지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IP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초기 창·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애니메이션 및 웹툰 분야의 창·제작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20인 이하 관내 중소기업이며 관내 입주예정 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애니메이션 최대 1억1000만원, 웹툰 5000만원으로 총 7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기획안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3개 과제, 웹툰 5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하며 2차 최종 결과물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별 3개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해 각 8000만원, 40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콘텐츠 포상은 기존 모집 기간(5월28일~6월17일)에 참가해 선정된 과제(애니 7팀, 웹툰 6팀)를 포함해 실시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국정기획위,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내일 순천 방문

국민제안·민원 접수

전라남도 순천시는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정책 제안과 토론, 갈등 해결가

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창구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직접 지역을 찾아가 현장 상담, 민원 접수 및 해결방안 모색, 정책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천시 호남호국기념관 3층 세미나실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순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현안 사업 현장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시민들의 제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정원도시 이어 '치유도시' 생태계 조성

정원·습지 기반 2027년 상품 출시 스테이·생태·심신 등 유형별 특화

정원과 습지를 기반으로 생태도시 이미지를 다져온 순천시가 '치유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외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순환경제를 목표로, 자연과 문화 자원을 연결한 치유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갯벌 치유센터, 휴양시설, 야외공원 등을 갖춘 '갯벌 치유관광 플랫폼'을 준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0억원을 포함해 320억원 규모로, 치유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치유자원을 '스테이 치유(정원 위케이션·송광사 등)', '생태 치유(순천만 습지·국가정원 등)', '심신 치유(어싱길·승마장·남파랑길 등)', '문화예술 치유(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 등)'로 유형화하고, 2027년까지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 조례 제정과 자원 조사, 시설 평가 기준 수립 등을 병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독일 바트비리시호펜, 영국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 치유산업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연 90만명이 요양·치료를 위해 찾는 인구 1만8000명의 치유도시 바트비리시호펜에서 "도시 전체가 약"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2023정원박람회 성공에 이어, 국가 해양습지정원·치유박람회 등 후속 모델도 준비 중이다.

일각에선 화순전남대병원 등과 연계한 의료치유 플랫폼 조성 등 전남도 차원의 치유산업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생태·바이오 자원이 접이라면 치유 플랫폼은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면이 되는 개념"이라며 "순천만에서 원도심까지 치유 개념이 도시 전역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